



HAL
open science

**Puk-hŏn chib-ŭi Namjŏng ki sŏl” (= Report on
Namjŏng ki in Pukhŏn’s Collected Writings)**

Daniel Bouchez

► **To cite this version:**

Daniel Bouchez. Puk-hŏn chib-ŭi Namjŏng ki sŏl” (= Report on Namjŏng ki in Pukhŏn’s Collected Writings). *Tongbang hakchi*, 1984, N° 43, pp. 143-175. halshs-00443565

HAL Id: halshs-00443565

<https://shs.hal.science/halshs-00443565>

Submitted on 30 Dec 2009

HAL is a multi-disciplinary open access archive for the deposit and dissemination of scientific research documents, whether they are published or not. The documents may come from teaching and research institutions in France or abroad, or from public or private research centers.

L’archive ouverte pluridisciplinaire **HAL**, est destinée au dépôt et à la diffusion de documents scientifiques de niveau recherche, publiés ou non, émanant des établissements d’enseignement et de recherche français ou étrangers, des laboratoires publics ou privés.

北軒集의 南征記說

D. 부세*

<南征記>라는 고대 소설은 목적을 가진 작품으로 전해왔다. 다시 말하면 朝鮮 肅宗이 己巳(1689)년에 王妃 閔氏를 廢黜하고 아들을 낳아준 張禧嬪을 妃로 맞아들이는 일을 諫하기 위해 지어진 소설이라고 해온 것이다. 이에 관한 口傳은 19세기 李圭景에 의해 늦게나마 처음으로 기록¹되었고 현대 학자들은 더 이상 검토치 않고 받아들여왔다.

필자가 이미 발표한 논문²에서 <남정기>本文에 文獻的 考證을 가해본 결과 이 通說은 그대로 받아들여도 무방한 것 같다. 숙종으로부터 폐출을 당한 閔妃의 困辱과 남편 劉廷壽에게서 버림을 받은 소설 主人公인 謝氏의 困境 간의 類似性은 과연 부인할 수 없다. 소설을 읽어가면 숙종 朝廷에 관한 暗示的 比喻와 그를 헐뜯는 표현 등을 곳곳에서 보게 된다.

<남정기>는 전해온 그대로 目的을 가진 小說이다. 필자는 또한 이 연구논문에서 지금까지 식별하지 못했던 작자의 다른 저작 동기를 밝히게 되었다. 즉 남편으로부터 억울하게 버림받은 사씨는 숙종에게서 폐출당한 민씨만을 대표하는 것 뿐 아니라 屈原의 楚辭-특히 離騷-에 유래한 隱喩에 따라 사씨는 숙종의 불신 및 유배를 당한 臣下인 작자 金萬重(1637~1692) 자신도 비유하고 있는 것이다. 남편에

* 프랑스 國立學術研究財團 (Daniel BOUCHEZ, C.N.R.S., France.)

¹ <五洲衍文長箋散稿>, 권7, 사진판, 1959년, 2책, 책 1, p.231.

² D. 부세, 南征記에 대한 一考察, 아세아 研究, XX-1, 1977-1, pp.189~211.

대한 주인공의 貞節은 임금에 대한 저자의 忠誠 바로 그것이다. 忠臣에 대한 王의 過誤는 사씨에 대한 남편 劉輸林의 잘못과 유사하다.

대부분의 고대 소설의 경우와는 달리 <남정기>는 작자 미상이 아니다. 이 소설에 대해 好評을 한 北軒 金春澤(1670~1717)이라는 이는 저자 이름을 자기 從祖父 西浦 金萬重이라고 밝힌 바³ 있다. 이런 證言은 저자와 친근한 사이에 있던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것으로서 틀림없을 것이다. 그리고 다른 고대 소설에 관해서는 도저히 찾을 수 없는 많은 사실도 알려주는 글로서 國文學史上 귀한 자료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헌의 <南征記雜說>⁴이란 글은 필자가 알기에는 전면적으로 연구 대상이 된 바는 아직 없다. 그리하여 本稿에서 북헌의 書評을 섬세하게 분석해 보고자 한다.

<남정기설>이 실려있는 <北軒集>이라는 책⁵은 近者에 재판된 일이 없는 古本이다. 그러므로 <남정기설>의 전편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알려진 것은 학자들이 필요에 따라 골라 문맥없이 인용하는 몇 개의 귀절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남정기설>을 註解해 보기에 앞서 原文의 全篇 그대로를 또 본 順序대로 轉寫하기로 한다.

<남정기설>은 권16의 附라고 하고 있으나 上記한 내용과 연결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북헌은 종조부의 소설을 언급하기에 앞서 詩를 論하여 중국인들의 것을 서투르게 模倣하는 한국사람들의 漢詩를 松江이 국문으로 지은 思美人曲 및 續美人曲과 대립시키고 있다. 김만중도 높이 평가했다는 이 歌辭의 主題는 유배를

³ <北軒集>, 卷16, 張25a-26a.

⁴ <북헌집>의 목록에 의하면 권16의 내용이 다음과 같다. 論學講理記, 聞西, 浦遺事別錄, 論詩文, 附雜說, 본문에는 雜說이라는 표제가 삽입되지 않았으나 목록의 이 말은 권16의 맨 끝에 기재되어 있는 <남정기>에 대한 글을 가리키는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 글을 <남정기 잡설> 혹은 간단하게 <남정기설> 이라 부르기로 한다.

⁵ 跋에 의하면 <북헌집>은 1760년에 板刻된 것이다. 참고 前間恭作, <古鮮冊譜>, 東京, 1944년, 3책, 책3, p.1760.

역술하게 당한 忠臣은 楚나라의 屈原이 먼저 쓰던 隱喻(allegory)를 빌어서 자기 자신을 버림당하여 옛님을 사모하는 女人에게 비유하는 것이다. 가사에 이와 같은 뜻이 은연히 깃들여져 있는 사실이 밝혀지는 과정에 대해서도 복헌은 또한 주목할만한 말을 하고 있다.

즉 妓生이 읊는 가사를 듣고 있는 선비들이 작자의 이름을 여인에게서부터 알아보았어야만 그 은밀한 비유를 짐작할 수 있다고 한다. 달리 말하여 가사의 은유적 의미는 기생들을 통해서 사회에 전해진다는 것이다. 그런데 송강 가사에 관한 이와 같은 사항들, 국문을 쓴다든가, 작자가 유배당한 사람이라든가, 굴원의 초사를 본땀다든가, 버림받은 여인의 은유라든가, 마지막으로 여자들을 통한 전달이라는 것과 같은 사항들은 모두 복헌이 <남정기>를 논하는 아래의 글에서 다시 나오게 된다.

<남정기설>의 본론은 對稱的으로 구조되어 있다. 소설들에 대한 간략한 머리말에 뒤를 이어 서로 어울리는 세 文段으로 나뉘어진다. 各段의 서두에는 저자의 이름, 원문이 국문이라는 것, 그리고 제2문단을 제외하고는 漢譯의 사실을 상기시키는 말이 한 마디씩 있다. 다음 1·2단에서는 소설의 내용이, 3단에서는 그 상대자들이 누구인가에 언급하는 말이 나와 있다. 각단의 끝으로 <남정기>의 독특한 教化力을 찬양하는 말로 매듭을 짓고 있다. 필자가 보기에는 <남정기>에 대한 이 찬문을 자세히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 특히 제2단에 삽입된 두 節의 인용문에는 그 소설의 의미를 이해하게 하는 함축성이 풍부히 있다고 보는 바이다.

머 리 말

小說, 無論廣記之雅麗, 西遊水滸文奇變宏博, 如平山冷燕 又何等風致, 然終於無益而已.

소설은 <太平廣記>의 아담고아한 아름다움, <西遊記>와 <水滸誌>의 기이한 변천과 거창함, 그리고 <平山冷燕>⁶과 같은 것의 풍치는 말 할 것도 없고 결국 아무 이익도 없다.

북헌의 <남정기설>은 소설에 대한 通論으로 개시되고 있다. 그가 소설이라는 용어를 무슨 뜻으로 이해하고 있는지 例로 드는 네 가지 書名을 보아서 충분히 알 수 있다. 그 중 <太平廣記>는 小說이라기보다는 중국에서 傳奇라는 짧은 이야기를 모은 책이지만 나머지 셋은 다 長篇의 假想的 이야기이며 소설이 중국에서 이미 독자적 文類(장르)로 굳어졌을 때에 지어진 것들이다.

西歐에서는 이런 문류를 novel(英)·roman(佛)이라 부르는데 동양의 小說이란 말을 번역할 때에 서슴지 않고 이런 말로 옮기는 것이다. 이런 번역은 편리하지만 중국 용어가 내포하고 있는 淸양스, 회상시키는 來歷을 간과하기 쉬운 것이다. 이것을 감지하지 않고서는 북헌이 이 글에서 소설을 경멸하여 말하고 있음을 이해할 수 없다. <漢書> 卷30에 의하면 小說家는 서민의 街談巷議를 모아 王에게 일러바칠 所任을 맡은 稗官의 출신들이다. 그런데 「한서」는 다음 귀절에서 孔子가 <論語> (子張-4)에서 이른바 小道에 대한 말씀을 小說이란 명칭에 적용시키고 있음을 볼 수 있다. "雖小道 必有可 觀者焉, 致遠恐泥, 是以君子不爲" 이렇게 <漢書>가 편찬된 六朝시대부터 小說이란 말은 동시에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가지각색의 이야기를 모은 책들을 가리키는 總稱으로 사용되어 왔다. 論語의 小道란 본래 소설과 무관했음에도 불구하고 <한서>의 史官이 이렇게 결부시킨 후로부터 소설은 이런 소극적 의미를 벗어나지 못하고 내려왔다.

⁶ 북헌이 여기서 <平山冷燕>에 언급하고 있는 것은 그 소설이 한국에 들어와 있다는 가장 오래 된 기록인 것 같다. 참고 朴晟義, <韓國文學背景研究>, 1972년, p.762, pp.78~79.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수백년 후에 이런 문류가 발생하여 小說이라는 명칭으로 불리워지게 되었다. 예를 들어 李奎報(1168~1241)는 逸話, 風俗說, 漫錄, 詩話 등이 섞여있는 책에 소설(白雲小說)이라는 제목을 붙였다. 나중에 문학이 발전하여 장편의 허구 작품들이 생길 때에도 그것을 역시 소설이라고 이름지었다. 용어는 아주 다른 의미를 취하게 된 셈이다. 그러면서도 小人들을 위한 잔 이야기라는 소극적 의미와 예부터 받아오던 멸시를 끝내 벗어나지 못한 채 내려왔다.

儒家들은 소설을 경멸했을 뿐 아니라 도덕에 어긋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들의 도의적 文學觀의 견지에서는 그런 작품의 문장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다 無用之物이라는 것이다. 李氏朝鮮의 文集들에 소설에 대한 이와 같은 비난이 많이 깃들여져 있다.⁷ 유가들이 代代로 소설에 대하여 거듭 경고를 할 필요성을 느껴오던 이 사실만을 보아도 한국 사람들이 소설을 얼마나 탐독하고 있었던가는 알만하다고 하겠다.

당시 유가들 가운데 북헌보다는 소설에 대해 훨씬 신랄하게 비난하는 이가 많았다. <水滸傳>에 대해 李瀾(1681~1763)은 그 따위 소설을 지은 사람은 도둑놈의 마음을 가졌을 것이라고⁸ 말하며 17세기의 洪萬宗은 소설은 모두 世道를 위미(萎靡)하고 宗社의 멸망을 초래한다는 말⁹ 까지 했다. 북헌의 평은 비교적 온건하다. 소설들에 대해 "非有關於世教"¹⁰라고 판단한 徐居正(1420~1488)의 無用論과 같은 것이다.

그런데 당시에 소설의 有益性을 주장한 사람이 있었다. 이는 바로 북헌의 종조부 김만중이었고 <남정기>의 작자이었다. 그는 역사책인 <三國志>를 읽지 않고 소설인 <三國志演義>를 애독하여 삼국시대 역사를 배우려는 선비들을 규탄하는

⁷ 참고, 金台俊 <朝鮮小說史>, 1939년, 271 p., pp.17~21 ; 金起東, <李朝時代小說論>, 1959년.

⁸ <星湖僿說>, 권7下.

⁹ <旬五志>, (韓國古典叢書, 책4, pp.386~387).

¹⁰ 詳節太平廣記序 (참고 朴晟義, 上揭書, pp. 600~601).

글¹¹을 쓴 것도 사실이지만 삼국지보다는 羅貫中의 이 소설이 細民을 감화시키기에 훨씬 효과적이라고 단언한 바가 있다.¹² 그의 종손인 복헌은 그와 같은 유다른 好意的 평가를 할 수는 없었다. 유가들을 설득하기 위해 먼저 그들의 偏見을 같이 한다는 말부터 시작해야 할 처지에 있었다. 상대자들의 환심을 이렇게 사지 않고서는 <남정기>를 例外로 소개하여 납득시킬 수 없었을 것이다.

第一 文段

西浦頗多以俗諺爲小說, 其中所謂南征記者, 有非等閒之比. 余故釀以文字, 而其引辭曰 言語文字以教人自六經, 然爾聖人既遠, 作者間出少醇多疵, 至稗官小記非荒誕則浮靡, 其可以敦民彝裨世教者, 惟南征記乎.

서포는 꽤 많은 소설을 언문으로 지었다. 그 중 <남정기>라는 것은 예사롭지 않은 비가 있었으므로 나는 이것을 한문으로 번역하고 서문에 다음과 같이 말을 했다:

언어와 문자는 六經 이후로부터 사람들을 가르치기에 사용되어 왔으나 성인들은 이미 멀어졌고 그간 나온 작품에 좋은 것은 적고 나쁜 것은 많다. 패관소설에 와서는 황탄하지 않으면 걸만 치장된 것들이다. 민이(民彝)를 두텁게 하고 사회의 교육에 이바지할만한 것은 오직 <남정기>뿐이다.

이 첫 문단은 김춘택이 <남정기>의 저자라는 얼마전까지의 通說에 대한 반증으로서 文學史上 중요한 자료가 된다. 이 설을 기록한 것으로는 19세기 중엽의 李圭景 上揭文과 아울러 19세기 말엽 모리스·꾸랑의 <朝鮮書誌>¹³와 20세기 초엽 日人

¹¹ <西浦集 西浦漫筆, 通文館>, 通文館, 1970년, p. 664, p. 649(漫筆 下).

¹² 上同, p.650.

¹³ Maurice Courant, *Bibliographie coréenne* (朝鮮書誌), 파리, 1894~1901년, 4책, 책1, p.390.

靑柳綱太郎의 序文¹⁴을 들 수 있다. 한국과 외국의 이 세 명의 학자들은 그 저자설을 미리 부정하는 말이 당사자 자신의 문집에 실려 있었음을 모르고 있었다.

<북헌집의> 이 문단은 1931년부터 東亞日報에 連載된 金台俊의 <朝鮮小說史>¹⁵에 의해 널리 알려지게 된 것이다. 그는 訛傳을 바로잡으면서 그릇된 저자설¹⁶은 선비들이 한문만 眞書라고 부르는 습관의 소산이라고 설명을 덧붙였다.

오늘날에 와서는 김춘택의 증언이나 김태준의 설명¹⁷을 부정하는 자는 없다. 왜냐하면 김춘택이 저자라고 밝힌 西浦라는 이는 上記한 바대로 그의 從祖父이었고 그가 어렸을 때에 잘 알던 어른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또 1689년 潤三月에 민비가 폐위를 당하기 며칠 전 그 어른이 마지막 유배길을 떠나는 장면¹⁸을 보았다. 그 때에 춘택의 아버지 金鎭龜¹⁹도 연루되어 유배형을 당했었다.

<남정기>의 소작을 자기 종조부에게 돌리는 북헌의 이런 통지는 놀라운 것이 아니다. 김만중은 九雲夢이라는 다른 소설의 저자로 잘 알려져 있다. 또 앞서²⁰ 참고가 된 <西浦漫筆>의 一節에 나타나 있는 것 같이 그는 소설에 대한 일반 유가들의 멸시에 공감하지도 않았다. 사실 소설의 敎化的 효능에 관한 그의 호의적 판단은 북헌 <南征記說>의 머리말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 그런 사람이 <남정기>의 저자라는 말은 안 믿을 수 없는 설이라 하겠다.

¹⁴ 靑柳綱太郎, <原文和譯對照謝氏南征記九雲夢>, 朝鮮研究會, 京城 1914년, 序.

¹⁵ 상계서, p.111.

¹⁶ 이규경, 상계서, 책 1, p. 231 참고.

¹⁷ 이규경이 국문이 원문임을 알면서 「언문」 인지라 일부 도외시켰을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그의 생각에는 소설을 통해서 임금을 깨우치게 하고자 한 이는 南海 적소에 있던 김만중이 아니라 서울에서 활약하고 있던 김춘택이었을지도 모른다. 이 가정을 배제할 수 없는 한은 김태준의 설명을 확실한 것으로 간주할 수 없다 (참고, 필자의 상계론, pp. 196~197).

¹⁸ <肅宗實錄> 十五年己巳 潤三月 20:342.

¹⁹ 上同, 六月, 21 : 16b.

²⁰ 위의 註 12 참고.

또한 위에 인용한 <西浦漫筆>의 일절은 종손의 글이 밝히고 있는 둘째 사실, 즉 김만중이 소설을 한문으로 쓰지 않고 국문으로 썼다는 사실을 이해하기에도 도움이 된다. 서포가 사람의 교육을 목적으로 썼다 하니 교육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나라말로 쓰지 않았으면 안 되었을 것이다. <남정기> 원문에 관한 북헌의 이런 보고는 한국 문학사에 있어서 희귀한 것이다. 이렇게 부인할 수 없는 증언에 의해 원문의 여하가 확실히 밝혀진 고대소설은 극소수다. 흔히 <洪吉童傳>이 최초의 국문소설인지 모른다 한다. 그러나 許筠(1560~1618)의 소작임을 알리는 史料²¹는 원문이 국문이나 한문이나에 언급치 않고 있다. 그뿐 아니라 현존하는 그 소설의 사본들은 과연 모두 국문본이지만 연대가 상당히 늦어 19세기 말엽 이전의 것은 하나도 없다.²² 한문에서 번역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풀기 어렵다. 국문으로 된 수많은 軍談설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회의를 품게 된다. 壬辰 丙子, 16-17세기의 兩亂이 불러일으킨 애국심의 소산이라 하지만 모두가 작자 연대 未詳이다. 이런 사정을 볼 때에 북헌의 증언은 국문소설의 효시에 관한 귀한 자료라고 아니할 수 없다.

서포가 국문소설의 저자라고 하는 이런 보도에도 <西浦漫筆>이 뒷받침을 하고 있다. 거기에는 또 송강이 국문으로 지은 가사-즉 북헌이 <남정기설>에 이르기에 앞서 논한-가사를 치하하는 글²³이 실려 있다. 文章이라고 인정받는 것이 한문 밖에 없던 당시에 서포는 그 詩를 중국문학의 걸작인 離騷와 비견할 만한 것이라고 대담하게 말하고 있으며 한국의 漢文學에 비하여 국어로 쓴 詩의 우월성을 역설하고 있다. 그 <西浦漫筆>의 한 장은 趙潤濟교수²⁴의 말대로 「한국 평론 문학의 大文字다.」 그리고 이 글은 김만중의 所信을 밝혀 그가 이조시대 양반사회의 편견에서 어느 정도 해방된

²¹ 李植(1584~1647), <堂別集>, 권15, 雜著.

²² 참고 : W.E. Skillend, *Kodae sosöl: A Survey of Korean Tradition Style Popular Novels*, London, 1968, 268 p. pp. 242~244.

²³ <西浦漫筆>; 상계관, pp. 652~653.

²⁴ 趙潤濟, <韓國文學史>1968년, 704~32p. p.273.

인물이었음을 나타내고도 있다. 그런 사람은 초기 국문소설의 저자라 해도 무리가 아니라 하겠다.

북헌의 말에 의해 서포는 <남정기> 이외에도 “꽤 많은” 국문 소설을 썼을 것이다. 그러나 현존하는 것으로는 「九雲夢」 하나 밖에 없다. 이 소설은 원문이 국문인지 한문인지는 <남정기>의 경우와는 달리 아직 문제로 남아있다. 丁奎福교수는 「구운몽」의 사본들을 한문본과 국문본을 다 검토한 끝에 1725년에 판각된 한문본이 그들에게 공동 祖型이 된다는 결론을 내리는 논문²⁵을 1961~1962년에 발표한 바가 있다. 그리고 정교수는 그 한문본이 국문의 번역이라는 이론을 반박하여 무근한 설이라고 한 다음 한문이 원문이라는 설이 가장 타당하다고 결론지었다.

그러나 丁교수는 국문 필사본 한 편을 검토하지 못했었다. 이는 서울 대학교 도서관 소장본으로서 연대 미상이지만 오래된 것임은 틀림없다. 丁교수는 이 필사본을 台本으로 하는 鄭炳昱교수의 註解版²⁶이 발간될 때야 비로소 이것을 살펴볼 수 있게 되었다. 그 결과로 이 국문본은 한문본의 요약 번역에 불과²⁷한 것으로서 소위 老尊本을 대본으로 한 것이고 1725년의 木板本보다 연대가 이른 것이라고 판정이 되었다.

鄭炳昱교수는 1972년의 주해판에서 丁교수의 한문저작설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뒷받침을 할만한 설명없이 다만 서울대학교 소장본이 오래된 것임을 지적한 李明九氏의 論旨를 인용하고 덧붙이기를²⁸ "西浦가 國文으로 九雲夢을 썼을 가능성은 충분히 認定해도 좋으리라 믿는다." 라고 말한다. 그렇지만 필자가 보기에는 그 가능성을 인정한다 할지라도 김만중이 썼다는 「꽤 많은」 국문 소설 중에서 현대에까지 전하는 것은 <남정기>하나 밖에 없다는 사실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²⁵ 丁奎福, 〈九雲夢異本考〉 <아세아 研究>, IX-2, pp. 1~50, X-1, pp. 133~159.

²⁶ 九雲夢, <韓國古典文學大系>, 第九卷, 1972년, 26, pp.516~181.

²⁷ 丁奎福, <九雲夢研究>, 1974년, 485 p. pp. 157~188.

²⁸ 鄭炳昱, <상계서>, 序, p.23.

「구운몽」의 원문 문제를 제외하면 김만중 소작 기타 모든 국문소설들은 反證이 없는 한은 逸書로 간주할 수 밖에 없다. 서포가 "언문"으로 썼다는 <남정기>에 관해서까지도 年記가 있는 국문본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은 1851년의 목판본인 사실을 볼 때에 한문으로부터 재번역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 <남정기>의 원문도 없어졌을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

이조 당시에 국문소설을 고이 보존할 리가 없었다. 선비들은 한문소설도 경시했거니와 소설이 "언문"인 경우에는 소중히 간주할 가치가 없는 것으로 여겼을 것이다. 읽기는 부녀자들이 안방에서 읽었고 筆寫도 거기서 아무렇게나 했을 것이다. <남정기>의 경우에 年紀가 있는 국문 필사본은 모두 19세기 말 내지 20세기 초의 것으로 되어 있다. 商業을 목적으로 한 소설의 板刻은 19세기 중엽²⁹에 와서야 시작된 일이다. 반대로 한문본으로서는 오래된 필사본이 많이 현존하고 있고 또 「구운몽」 한문본은 연대가 이른 목판본까지³⁰ 있다. 이런 상황으로 미루어 <구운몽>과 <남정기>양 작품이 김만중 소작의 다른 모든 소설들이 겪게 된 운명을 면한 것은 한문으로 되어 있었던 덕분이 아닌가 생각이 된다.

현존하는 <남정기> 국문본들은 모두 재번역이라는 것을 일단 가정해 본다면 이런 경우에는 <남정기>를 한문으로 옮긴 복헌은 김만중 소설 중 하나만 보존시켜 우리에게 전한 功을 세웠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³¹ 한편으로 동시대인들에게는 국문 소설을 漢譯한다는 일이 이상하게 여겨졌을 것이다. 이를 정당화시키기 위해 복헌은 한역 동기를 밝힐 필요를 느껴 다음 문단에서 설명하겠지만 여기서는 비치기만 하고 있다.

²⁹ 金東旭, <春香傳研究>, 1965년, 529 p., pp. 379~402 참고.

³⁰ 참고 : 丁奎福, 상계 <九雲夢研究>. pp. 136~142.

³¹ 김춘택 이외에 <남정기>를 한역한 사람은 적어도 둘이 있었다. 이에 대해 필자의 <南征記漢文本考>, <백영정병욱선생 還甲記念論叢>, 1982년, p. 1202, pp. 660~762 참고.

<남정기>에 예사롭지 않은 「比」가 있다는 문장은 현대 論者들이 인용하기만 하고 번역하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그들이 이끌어내는 결론을 볼 때에 「比」字에 막연한 뜻 밖에 부여치 않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金鉉龍교수³²는 이 첫 문단을 전부 인용하고 거기에 입각하여 김만중의 諷諫的 意圖에 대하여 <남정기설>에 一言半口의 말도 없음을 주장한다. 이에 반론하여 작자의 저작 동기에 대한 통설을 변호하는 丁奎福교수³³도 복헌의 이 문구를 들지 않고 있다. 「比」字를 「바」의 뜻으로, 또 "有非等閒之比"는 비범한 바가 있어서 라고 해석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比"字를 그렇게 풀이할 수는 물론 있다. 그렇지만 필자는 문맥에 비추어 다른 해석도 가능하다고 간주한다. 복헌이 송강가사를 논하는 上文³⁴에 참고하면 "比"字를 정확한 용어로 쓰고 있음을 보게 된다. 즉 송강이 사용하는 버림받은 女人의 隱喻를 "比"라고 하고 있다. 比는 詩經 大序의 六義中의 하나요 朱子の 주석³⁵에 의하면 興, 賦와 함께 作詩하는 세 가지 방법 중의 하나다. 주자는 比에 관해 前代의 說을 고쳐 "所指之事常在言外" 즉 가리키는 일이 늘 말 밖에 있는 비유라고 정의를 지었다.

환언하여 주자가 보는 比는 興과 반대로 뜻하는 바를 표현하지 않고 추측에 맡겨두는 비유라는 것이며 현대의 隱喻(allegory)³⁶라는 개념에 해당되는 말이다.

송강가사를 논하고 난 복헌은 자기도 제주도에서 귀양생활을 하고 있을 적에 송강의 본을 따서 소박맞은 여인을 주제로 하는 국문가사를 지었다 한다. 자기가 쓴 이런 비유에 대해서도 比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리하여 역시 버림받은 부인을 주인공으로 하는 <남정기>에 이를 때에는 같은 "比"字를 또 한 번 사용하고 있음이

³² 金鉉龍, 〈謝氏南征記研究〉, <文湖>, 5號, 建國大, 1969~5, p. 139.

³³ 丁奎福, 〈南征記의 著作動機에 대하여〉, <成大文學>, 15~16號, 1970년, p. 3.

³⁴ 張 24a, 行7.

³⁵ <朱子語類>, 黎靖德編, 卷80, 張 3286~7.

³⁶ 朱子가 比에 대해 지은 定義는 로마제국시대의 꾸인띠라누스(8-6-44)가 allegoria에 대해 지은 것과 大同小異한 것이 흥미가 있다.

우연이라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남정기>는 詩歌가 아니라 산문이요 소설이다. 그러나 <남정기설>을 계속 읽어 나아가면 이 글을 쓴 복헌은 고대 중국의 시문학을 참고하고 있었음이 분명해지리라 믿는다.

<남정기> 원작에 "예사롭지 않은 比"가 있던 사실은 또한 漢譯書 서문의 사연과도 관련이 있다. "有非等閒之比, 余故…而引辭曰"이 문장의 마지막 네 글자는 난해한 문구이다. 「其」字는 무엇을 혹은 누구를 가리키는지, "引"字는 무슨 뜻인지, 또 인용문을 도입하는 말인데 다음의 말이 어디서 따온 글인지 얼마 전까지는 알 수가 없었다. 그러나 1976년에 丁奎福교수가 <남정기>의 한 한문본을 발견하여 소개³⁷할 때에야 이 네 글자의 뜻을 풀 수 있게 되었다. 그 한문 필사본에 복헌이 작성한 서문이 실려 있었고 이는 복헌집의 권16의 "其引辭曰"이란 바로 이 문구부터 나온 글과 똑같았다. 서문 앞에 붙은 표제 <翻諺南征記序> 이라는 것을 볼 때에 그 아래 나오는 "引"字에 序의 뜻이 있는 줄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金台俊이 발굴한 유명한 <남정기잡설>은 다름이 아닌 <남정기> 한역본의 서문인 사실이 밝혀지게 되었다.

거기에 달린 年紀는 복헌이 <남정기>를 번역한 시기와 장소를 알리고 있다. 「歲己丑仲秋瀛洲謫舍引」瀛洲란 지명은 제주도 東部に 위치한 산의 이름³⁸이다. 1697(丁丑)년에 전라도 扶安에 귀양갔던 김춘택은 張氏 아들인 王世子에게 해를 끼칠 음모의 혐의로 1706(丙戌)년에 加刑이 되어 서울에서 제일 먼 적소인 제주도에 옮겨졌었다³⁹. 1710년에 감형을 받아 전라도 沃溝郡 臨陂라는데 定配되었다⁴⁰. 복헌이 제주도에서 보낸 4년 중 1709년이 己丑年이어서 <남정기>를 한역한 해는 1709년임을

³⁷ 丁奎福, 〈翻諺南征記攷〉, <淵民李家源博士六秩頌壽記念論叢〉, 1977년, pp. 17~25.

³⁸ <新增東國輿地勝覽〉, 권38 참고.

³⁹ <肅宗實錄〉二十七年 辛巳, 十一月, 장31a.

⁴⁰ 上同 三十三年 丁亥 八月 45 : 44b.

알 수 있다.⁴¹ 이 年紀는 또한 일부 논자들이 전하는 <남정기>에 관한 傳說⁴²을 排除하게 된다. 그런 설에 의하면 김춘택이 종조부의 소설을 번역한 시기는 1694년 이전에 閔妃의 復位를 위한 비밀운동에 활약하고 있을 때였고 그 한역서를 북경에 다녀올 冬至使에게 맡겨서 돌아올 때에 그 책을 중국에서 가져온 것처럼 말하기를 부탁했더라는 것이었다.

서문은 <남정기>에 대한 찬사로 시작된다. 그 표현은 문학에 관한 宋學의 여러 경전에서 따온 말로 되어 있다. 북헌은 먼저 다음과 같은 일반 命題로써 그 功利主義의 문학관을 개괄하여 "六經 이후로부터 언어와 문자는 사람을 가르치기에 사용되어 왔다"라고 말한다. "敎人"이란 두 글자는 <朱子全書> 第五卷의 제목을 상기시킨다. 거기에 朱子가 즐겨 쓴 그 속어의 뜻을 풀이하는 글들이 모여졌다. 그 중 「사람을 가르치는 것(敎人)이란 孝 弟 忠, 信에 따른 日常의 행우에 대한 좋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하는 말이 있다.

북헌은 다음에 六經 이후로부터 쓰여진 것 대부분을 일축하면서 소설(패관소기)의 허황함을 개탄하고 있다. 여기에 덧붙이기를 「民彝를 두텁게 하고 사회의 교양에 이바지 할 만한 것은 오직 <남정기>뿐」 이라고 하였다. 「민이」라는 용어는 시경의 한 귀절⁴³을 연상시킨다.

"天生增民 有物有則, 民之秉彝, 好是懿德"

위의 四行은 孟子가 人性의 善함을 예증하기 위해 골라낸 문구 중의 하나이며 나중에 宋學에서는 맹자의 주석과 함께 자주 인용한 것이다⁴⁴. 주자는 이 시를

⁴¹ 이 年紀는 한역을 한 시기보다는 다만 序文을 쓴 때를 가리킨다고 반론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북헌은 <남정기설>에서 귀양살이의 한가함을 타서 번역을 했다고 하기 때문이다.

⁴² 周玉山, <朝鮮古代小說史>, 1950년, 319 p. p. 176.

⁴³ <詩經>, 大雅 3-5.

⁴⁴ <孟子>, 告子上, 6-1-6-8.

해석하면서 "彝" 字를 五倫에 관한 人性에 새긴 법이라고 풀이하고 있다⁴⁵. 彝를 따라 사는 이는 눈이 빛을 좋아하고 귀가 음을 좋아하는 것처럼 오류에 나타나는 의덕을 감탄하여 즐기지 않을 수 없다. 복헌은 <남정기>를 가리켜 덕을 사모하는 마음을 굳혀서 사회도덕을 높이는 유일한 소설이라고 하는 것이다.

유가들의 윤리적 문학관에서 볼 때에 <남정기>는 소설이라 해도 道에 부합하는 글이며 따라서 「文」이라는 칭호를 받아 마땅하다고 하는 말이 된다. 복헌은 그와 같은 기준으로 글을 판단하는 동시대인들에게 <남정기>의 외면만을 보지 말고 내용도 알아보기를 요청한다. 이 작품은 소설이며 심지어 「언문」으로 된 것이지만 문학에 대한 유학의 엄한 기준에 準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극찬의 이유는 주인공 謝부인의 모범적 미덕에 있다고 일반 논자들은 해석하고 있다. 부모와 구고에 대한 효도와 아울러 제삼자의 계략에 속아 자기를 억울하게 소박한 남편에 대한 절개로 보아 사씨는 漢나라 劉尙이 <列女傳>에서 찬양한 烈女の 계열에 속함은 틀림없다. <列女傳>이란 책은 明나라 成祖가 조선의 太宗에게 보내준 ⁴⁶ 이래 한반도에서 대인기를 끌어왔었다. <남정기>에서도 작자가 가끔 사씨를 열녀전의 유명한 여성들에게 비유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절망에 빠진 사씨를 위로하고 액운의 원인과 결과를 밝혀주고 그 종말을 예고하는 두 여인은 <列女傳> 권一의 傳記에 제일 먼저 나오는 바로 舜帝의 兩夫人들이다⁴⁷. 그들은 또한 <列女傳>을 읽었던 사씨로 하여금 그 책에 의해 유명해진 옛부인 몇분에게 인사시킨다⁴⁸. 끝에 노령에 이른 사씨는 유향의 저서와 비슷한 책을 후대의 여성들을 위해 썼다⁴⁹는 말이 있다.

⁴⁵ <孟子集注>, 註42에 인용한 文句에 대한 주석이다.

⁴⁶ <大明會典>(1569년) 권 117과 <靑莊館全書>, 권55(사진관, 1966년, 책 3, p.354) 참고.

⁴⁷ <謝氏南征記>, 影印古小說板刻本全集, 金東旭編 5책, 1975년, 책 4, 권1, 張 5-6.

⁴⁸ 上同, 張8b-9a.

⁴⁹ 上同, 권2, 張 33a.

이러한 勸善懲惡, 즉 미덕의 모범, 亂後의 報償, 악인의 징벌 등은 북헌의 찬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현대 논자들의 定評이다. 간단히 말하여 그들은 북헌의 글을 종조부가 쓴 여자 일대기의 안방용 교훈성을 칭도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그런 해석은 이와 같은 극찬을 정당화 하기에 족한지가 의문이다. 아울러 북헌이 선비들을 상대로 이 여성소설을 한문으로 번역한 사실을 조금도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필자는 북헌이 본 <남정기>의 특성을 다른 점에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특성을 구명하기 위해 <남정기설>이 대칭적으로 구조되어 여러 부분이 서로 상응하고 있다는 사실에 다시 주의함이 좋으리라 믿는다. 上記한 바와 같이 각 문단이 동일한 점에서 출발, 前進하여 뒷 과도가 먼저 과도의 물을 덮는 듯 같은 내용이 되풀이 하고 같은 식으로 끝을 맺고 있다. 그러면서 뒤의 각 문단에 앞의 그것에 없는 중요한 요소가 하나씩 밀려온다.

각 문단 내에서도 말이 직선적으로 나아가는 것은 아니다. 역시 反復性이 있어서 새 말이 앞의 말을 보충하고 있는 것을 보지 않으면 결국 요지를 간과하고 만다. 위에 분석한 제일 문단에서 북헌은 먼저 <남정기>를 한문으로 번역하기로 한 것은 「예사롭지 않은 比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다음 언어와 문자의 목적성에 대한 일반적 말을 하여 소설 중에서 그런 목적성에 副應하는 것이 <남정기>뿐이라고 덧붙인다. 이 두 문장의 내용이 서로 겹치고 있다. 북헌이 한문으로 옮겨 선비들에게 소개하고자 하는 「예사롭지 않은 比」는 「민이를 두텁게 하고 사회의 교육에 이바지하는」 바로 그것이다. 그러면 소설의 교훈성은 겉으로 보이는 모범이 될만한 여자의 일대기에 있는 것보다는 「예사롭지 않은 比」의 표현되지 않은 숨겨진 면에 있다는 것이다. 다음 제2문단에 넘어가면 북헌이 이런 숨은 뜻을 거듭 시사하고 글의 속 뜻을 파보기를 권하는 말을 보게 될 것이다.

第二 文段

- A. 記本我西浦先生所作, 而其事則以人夫婦妻妾之間, 然讀之者無不咨嗟_レ泣. 豈非感於謝氏處難之節, 翰林改過之懿 皆根於天 具於性, 而然者其憤痛裂眦 又豈不以喬董之惡哉.
- B. 不唯如是, 推類引義將無往而非教人者, 所謂放臣怨妻與所天者, 天性民彝交有所發, 則如楚辭, 所謂感發人善心, 懲創人之逸志, 則又庶幾乎詩, 是烏可與他小說同日道哉.

A. <남정기>는 본래 우리 서포선생 소작으로 인간관계 즉 부부 처첩 관계를 주제로 하지만 읽는 사람은 탄식하고 눈물을 흘리지 않는 자는 없다. 사씨가 곤경에서 지키는 정절이나 한림이 잘못을 고치는 아름다움이나 모두가 天然에 뿌리를 박고 본성에 갖추어진 것임에 어찌 감동되지 않겠는가. 또한 그러한 사람은 교씨와 동청의 악독함에 어찌 분개통탄하지 않겠는가.

B. 뿐만 아니라 비유를 써서 뜻을 드러내는 데 사람을 가르칠 만한 것이 없는 데가 없다. 이른바 추방당한 신하, 원을 품는 처와 아울러 그 주인들과의 관계는 天性和 民彝가 서로 작용함이 楚辭와 같다. 또 이른바 사람의 좋은 마음씨를 감동하여 분발시키고 난잡한 뜻을 억제하도록 함은 詩經에 가깝다. 그리하니 어찌 다른 소설과 같이 보겠는가.

이 둘째 문단에서도 첫째의 그것에서와 같이 반복성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먼저 A라고 표시된 귀절에 위에서와 같이 저자 이름을 대는 말로 시작하여 比가 있다는 말 대신에 여기에는 作中人物들의 眞實性을 기리는 말이 나와 있다. 현실의 인간들을 등장시키고 그 사이에 맺어지는 자연관계를 주제로 한 작자를 칭찬함으로써

북헌은 <남정기>를 패관소설에 對置시키는 것이다. 정규복교수가 이미 지적한 바⁵⁰와 같이 다른 고대소설을 읽어 본 사람은 <남정기>에는 초자연적 현상들이 적게 나타나는 사실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주인공의 기적적 탄생도 없고 공중에 날라다니는 일도 없고 얼굴을 변화시키는 일도 없고 몸을 줄이거나 늘이거나 하는 일도 없다. 마술을 써서 승리를 한 일도 없다.

실은 <남정기>에 초자연적인 요소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작자는 劉翰林이 첩의 呪術에 걸려 매혹되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효험을 어느 정도 시인하는 것 같다. 그러나 <남정기>에 나타나는 마술은 판 소설에서와 같은 과시할만한 신비스러운 기술이라기 보다는 선비들이 옛부터 멸시해 온 한국 무당이 하는 짓에 가깝다. 그리고 김만중 소설에서는 天上人物들이 地上事에 개입하는 일이 있기는 있되 수궁할 수 있게 서술되어 있다. 즉 잠든 사람이나 기절한 사람의 꿈 속에 나타나고 있다. 天人의 現夢이란 生時의 發現에 비해 초자연적인 면이 적은 편이다. 한편 <남정기>에 나타나는 천상인물들은 줄거리에 변경을 초래하지는 않는다. 오직 사람에게 액운의 의미를 밝혀주고 행운의 회복을 약속하여 용기를 돋워줄 뿐이다. 天意를 설명해 주는 역할인데 현대 소설의 경우에는 地上 인물에 의해 행해지는 성질의 것이다.

<남정기>에서 또한 천상 인물이 예언한 종말의 구출도 기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기 보다는 일련의 邂逅상봉(邂逅相逢)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중국 넓은 땅에서 그리 공교롭게도 서로 만난다는 것이 순수한 우연이라 믿기는 어려우나 하여튼 자연계의 법칙을 어기는 일은 아니다. 초자연성이 있으면 천상인물의 예언에 있을 뿐이다. 邂逅상봉이란 본래 세상을 다스리는 하늘의 攝理에 의한 것이라고 믿을 수 있다.

⁵⁰ 丁奎福, 〈南征記論攷〉, <국어국문학>, 26號, 1963~6, pp. 40~42.

북헌에 의해 <남정기>가 가정 내에서 맺어지는 것과 같은 실제 인간관계를 주제로 한 것도 장점의 하나다. 국문학사에서 金起東교수⁵¹를 따라 <남정기>를 이른바 家庭小說의 부류에 넣는 것이 관례다. 그 이유는 첩을 잘못 골라 맞아들인 탓으로 劉氏가문에서 연발하는 일에 관한 서술이 全文의 前半部를 독차지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필자는 <남정기>의 전편도 이런 부류에 들어맞는 다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남정기>라는 표제는 가정 내의 전반부 일에 보다는 모험소설의 인상을 주는 후반부에 주의를 끌어주는 것이다. 오늘날에 흔히 「사씨남정기」⁵²라고 부르는 것은 한 사람의 일대기를 가리키는 것 같다. 그러나 金鉉龍교수⁵³가 증명한 바와 같이 주인공 사씨와 직접 관계가 없는 에피소드가 여럿 있다. 첩 교씨와 비서 동청 간의 간통, 사씨의 아들을 물에 빠뜨려 죽이라는 교씨의 명령, 유한림을 살해하려는 시도 등은 사씨의 미덕을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교씨의 悖倫을 명백히 하기 위한 이야기들이다. 작품의 중심을 사씨라는 어느 한 사람에 두는 것보다는 첩의 질투로 인하여 무너질 뻔한 온 가족에 두고 있는 듯 하다. 달리 말하면 그런 첩을 맞이하고 그녀에게 매혹된 집주인의 총명 부족에 역점을 두고 있는 것 같다. 결국 舜帝의 兩夫人이 사씨에게 모든 일을 이렇게 설명하기를 사씨의 고뇌는 한 때에 어두워진 한림의 정신을 일깨우기 위해 하늘이 허용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지 않는가?⁵⁴ 끝으로 한림이 총명을 회복한 다음 온 가족도 행복과 평화를 되찾게 된다. 이렇게 보면 소설 전편이 「가정소설」로 되어 있는 것이다.

⁵¹ <상계서>, pp. 302~355.

⁵² <北軒集>과 <五洲衍文長箋散稿>에는 표제로서 南征記 三字 밖에 없다. 年記가 있는 사본 중의 오래된 것에도 마찬가지다. 연대가 늦은 사본 중에 謝氏傳이라는 서명이 붙은 것이 있다. 오늘날에 흔히 쓰이는 긴 제목을 가진 것 중에 1851년에 板刻된 由洞本이 제일 오래된 것 같다.

⁵³ 상계론, pp. 142~143.

⁵⁴ 상계 영인집 책4, 권 2, 張8a.

<남정기>는 또한 한 집에 사는 두 女人의 대치 관계를 그려놓은 소설이다. 처첩의 동거로 마땅히 고통을 느꼈을 이씨조선의 여성 독자들에게는 실감이 나는 주제가 아닐 수 없었다. 그 시대의 양반 집에서 첩과 그 소생인 庶子의 신분은 심각한 문제로 되어 있었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한림의 첩인 교씨는 중국인이었지만 본처의 아들이 태어난 다음에 자기 아들에 관한 근심을 표명하는 말을 하고 있는데 이는 중국 작자보다는 한국 작자가 그럴듯하게 쓸 수 있는 것이었다.

그렇다고 하여 사회제도에 의한 첩과 서자의 열등한 신분은 김만중이 보기에 교씨 질투심의 변명이 된다는 것은 절대 아니다. 오히려 그 여인이 시기하여 범하게 된 酷毒한 죄는 한갓 그녀의 간악한 마음에 근원을 두고 있는 것이다. <남정기>는 蓄妾 자체에 대한 풍자가 아니다. 작품 중 그 제도에 대한 원칙적 반론⁵⁵을 유한림의 고모가 표현하고 있으나 저자는 그런 반대가 있음을 알면서 동의하는 표시를 하지 않고 있다. 도리어 끝에 가서 주인공이 남편에게 좋은 처녀를 새 첩으로 권하는 이야기까지를 실었다. 사회제도에 대한 비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도덕적 교훈을 주고자 하기 때문이다. 집주인은 첩을 선택함에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하고 집의 여인들을 늘 공평하게 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만중의 저작 동기는 어디까지나 교화적이며 도덕적이다. 실제적 인물을 등장시켰다고 치하하는 북헌의 의사도 마찬가지다. 당대 실생활이 <남정기>에 반영되는 사실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흥미가 있고 당시 독자들에게도 실감이 났을 것이다. 북헌은 감명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격찬의 대상은 실생활을 진실하게 묘사했다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심리를 정확하게 분석했다는 점도 아니다. 북헌의 관점은 儒家의 도덕적 문학관에 있다. 또 본문의 두 문장은 "그러나" 라는 뜻으로 "然"이라는 접속사로 연결 되어 있음이 주목할 만하다. 북헌의 말은

⁵⁵ 上同 張12b-13a.

서포선생은 일반소설의 경우 통용되는 것과는 달리 실제에서 나온 인물을 등장시켰음에도 불구하고(그러나) 독자를 감동시켜 주기에 성공했다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독자의 흥미를 끌어주기에 황탄(荒誕)하거나 부미(浮靡)한 것을 쓸 필요가 없다. 유교에서 말한 오륜과 그 사이에 생기는 덕의 모범을 제시하면서도 독자들을 감동시킬 수 있다. 이는 사씨의 정절과 한림의 改過와 같은 덕행은 인간의 본성에 근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소설의 등장인물의 마음에서 일어나 독자 마음에 직통한다. 미덕을 나타내는 이야기를 하고 善을 사모하는 독자의 본심에 호소하는 것이어야만 진정한 "文"이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북헌의 이런 말은 주자학의 문학관을 잘 표명하기는 하되 한편의 소설을 논평하기에는 너무 장중한 말 같기도 하다. 과언으로 보이는 이 말은 평론자들의 識見을 무디게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된다.

그들은 이유가 어떻든 간에 <남정기설>이 내포하고 있는 함축성을 간과한 것 같다. 이는 B로 표시된 다음 귀절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비쳐질 터이니 B로 넘어가는 것이 좋으리라.

B절에서 북헌은 우선 제 일문단에서 언급하면 "예사롭지 않은 比"로 되돌아와 거기에 모든 것이 독자를 교화시킬만 하다고 말하고 있다. 이 B절의 "類" 字는 제 일문단의 「比」⁵⁶字에 해당된다. 따라서 "敦民彝婢世教"라는 말에 해당된다. 그런 교화력이 있다는 것은 比요 隱喩며 달리 말하여 표면에 나타나지 않고 있는 은유의 숨은 뜻이다. 필자가 보기에 직후에 나오는 두 절의 인용문은 이런 해석에 뒷받침을 해 줄 것이다.

첫 인용문은 朱子가 쓴 <楚辭集注>⁵⁷의 序文에서 따온 문장이다. 朱子는 일부 유학자들이 비난한 屈原을 변호하여 그에게 결점이 다소 있었다고 양보하면서 그의

⁵⁶ <星湖僊說>권 3 上 참고. 거기에 李瀾도 버림받은 女人의 古代詩 隱喩를 한 마디로 가리켜 類라고 하고 있다.

⁵⁷ <朱子文集>, 권76.

장점이 그것을 상쇄(相殺)하고도 남음이 있다고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中庸을 벗어난 점은 다 "忠君愛國之誠心"에서 우러나온 것이다(省略). 굴원은 周公과 孔子의 道를 구하기 위하여 北方에 가 배운 바는 없어서 다만 이리저리 말을 달리듯 變風變雅의 末流에 넘나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대가를 부끄러워하는 醇儒나 壯士들이 있다고 주자는 말하고 있다. 다음 문장은 복헌이 인용한 귀절이다. 그가 몇 字를 생략하여 뜻을 불명하게 했으므로 全文을 復元하는 것이 좋겠다.

然使世之放臣屏子怨妻去婦拔淚謳吟於下, 而所天者幸而聲之, 則於彼此之間天性民彝之善, 豈不足以交有所發而增夫三綱五典之重.

그러나 이 세상에 추방당한 신하나 쫓겨난 아들이나 원을 품는 처나 버림받은 부인은 눈물을 닦고 아래서 노래를 하여서 그 높으신 이는 들어주시면 피차간에 天性和 民彝의 善함이 동시에 드러나는 바가 있어 三綱五倫의 무게를 더하기에 어찌 족하지 않겠는가.

복헌은 이상 인용문에 곧 이어서 「楚辭와 같다」라고 덧붙인다. 이 말은 논자들의 주목을 아직 끌지 않은 듯 하다. 그런데 <남정기>에 교화 소재가 될 만한 좋은 이야기가 있다고 간단한 호평을 하기에는 지나친 말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복헌의 과한 가족정신에 의한 엉뚱한 비교라 도외시해 버릴 것인가? 이르기 전에는 자세히 분석해 보는 것이 좋으리라.

먼저 원문을 생략한 인용문과 대비해보면 거기에 추방당한 신하나 버림받은 여인이 군주나 장부와 맺는 관계의 성질이 분명한 사실에 주목하게 된다. 前者는 노래로써 하소연을 하는 한편 後者는 이를 들어 감동을 받는다. 귀양간 굴원은 자기를 버림받은 여자에 비유하고 있고, 離騷는 그녀가 옛남에게 보내는 애가로 되어 있다. 楚나라의 임금은 이런 구슬픈 노래에 귀를 기울임으로써 총명을 나타내리라는 것이다.

당사자 굴원은 이와 같이 원을 품고 불평을 내는 일이 반항이 아니라는 것이다. 주자가 보기에 오히려 司馬遷이 이미 쓴 바⁵⁸와 같이 인정을 못받은 충성과 절망에 빠진 애국심에 근원을 둔다는 것이다. 제주도로 귀양가 있던 북헌도 굴원과 송강을 본따서 가사를 국문으로 지은 바⁵⁹가 있다고 한다. <남정기설>에 이르기 바로 전에 그는 그 벼리를 한문으로 소개하면서 자기는 배은망덕자나 반항자이기는 커녕 임금의 측근자들보다도 충성을 더하는 사람이라고 자찬하고 있다. 懷抱를 공손하게 토로하는 것은 충성을 표시하는 일이 아닌가? 忠이란 人性을 구성하는 三綱 중의 하나인 君臣관계에 해당되는 덕이다. 향의하는 식이라 할지라도 心情은 충성에서 나온 것이라 이를 문학작품으로 표현함은 상기한 바 "민이"를 두텁게 하는 일이다.

북헌의 이런 고귀한 말은 서포의 저작동기와 무관한 것으로 해석이 되어 왔다. 예를 들면 김현용교수의 논문을 반박하여 <남정기>에 정치적 의미가 있다는 통설을 변호하는 정규복교수도 북헌의 이 둘째 문단을 들면서 거기에 그런 뜻에 대한 아무런 언급도 없다고 양보하고 있다.⁶⁰ 북헌의 글이 무의미한 찬사라 하면 <남정기>에 楚辭와의 공통점이 있다 함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어진 마음을 표하는, 누구나 읽어도 좋은 良書라는 공통점이라 답을 하면 이 글을 속이 빈 진부한 이야기로 보는 것이나 다름이 없겠다. 필자는 반면에 <楚辭集注>序의 이 절귀가 <남정기>에 적용되는 것이 무의미하기는 커녕 그 작품의 은밀한 뜻을 암시하는 줄로 생각하는 바이다. 북헌이 이른바 天性和 民彝가 발하는 심정은 君臣, 夫婦 간에 해당되는 情이다. 즉 멀리 떨어진 처 또는 추방당한 신하와 또 한편으로는 그 上位에 놓인 이(임금이나 장부) 사이에 일어나는 마음이다. 前者는 楚辭의 경우에 자기를 버림받은 여인으로 비유하는 학자를 가리키고 있는데 <남정기>의 경우에서도

⁵⁸ <事記>, 권 84, 屈原傳.

⁵⁹ <북헌집>, 권 16, 張24ab.

⁶⁰ <成大文學>, 상계론, p. 4.

마찬가지다. 서포는 필자가 이미 논증한 바⁶¹와 같이 離騷에서 따온 南征이라는 표제의 두 자를 비롯하여 사씨와 굴원 사이의 유사성을 여러 가지로 시사하고 있다. 楚王의 불행한 신하의 모습은 그와 같이 버림받은 여인을 등장시킨 다른 「放臣」 즉 김만중 자신을 연상시키고 있다.

상위에 있는 후자를 논하자면 부인에 대한 잘못을 뉘우치는 소설의 유한림은 충신을 명철하게 되불렀으면 좋겠다는 현실의 숙종왕에게 해당이 되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리고 「남정기설」 만을 보지 않고 <북헌집> 권16의 문맥의 앞뒤를 계속 읽어 내려가면 <楚辭集注>序의 인용문이 뜻이 없는 순 文飾이 아니라는 것은 더욱 분명해진다. 필자가 상기한 바와 같이 <남정기설>에 이르기 전에 북헌은 위의 몇 장에서부터 송강이 <楚辭>를 모범으로 하여 지은 가사를 논하여 버림받은 여인에 대한 은유를 가리켜 두번이나 "比" 字를 사용한 다음 그런 여인을 주인공으로 하는 소설을 <楚辭>에 견주게 되는 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더군다나 그 은유에 언급하는 인용문을 이끌어들이면서 "비유를 쓰는 데(推類)에 있어서 (中略) 사람을 가르칠 만한 것이 없는 데가 없다"고 덧붙인 사실을 볼 때에 그런 교화력이 있다는 것은 바로 그 은유라고 결론을 내리지 않을 수 없다. 첫 문단의 이른바 "민이를 두텁게 한다"고 하는 대칭도 역시 그것에 관한 것이다.

이와 같은 해석은 <남정기>에 대한 통설과는 다르다. 거기에 은유가 있다고 흔히 말하는 것은 다른 성질의 것이다. 집에서 쫓겨난 사부인은 유배를 당한 저자를 연상시킨다고 하지 않고 숙종에게서부터 廢黜을 당한 閔妃를 상징한 것이라고 한다. 필자는 상계 논문⁶²에서 그런 설을 확증하면서 <남정기>에 민비에 관한 한 가지 은유적 의미만이 아니라 민비와 아울러 유배자 김만중에 관한 이중의 은유적 의미가 있음을

⁶¹ <아세아研究>, 상계론, p. 205.

⁶² <아세아研究>, 상계론.

주장한 바가 있다. 필자의 비견이 옳다면 김만중의 종손인 김춘택은 누구보다도 <남정기>의 이 두 가지 풍간적 의의를 모를 리가 없었다. <남정기설>에서 한 가지 은유를 빗대고 나서는 민비에 관한 다른 한 가지도 암시했으리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된다.

<楚辭>에 대한 위의 인용문은 소위 怨妻에 언급하고 있기는 하나 소박을 당한 민비와는 관련이 있을 수 없다. 왜냐 하면 <楚辭>의 <離騷>는 버림받은 여자의 비유를 실제의 다른 여자에게 적용시킨 것이 아니라 추방당한 충신과 관계되기 때문이다. 민비에 관한 은유를 던지시 가리키는 것은 다음에 나오는 인용문인 것 같다. <四書集注>에서 따온 것으로서 역시 문학에 대한 朱子學 經典의 한 대목이다. 주자는 거기서 <詩經>에 대한 孔子의 유명한 격언⁶³ 「詩三百, 一言以蔽之, 曰思無那⁶⁴」 라는 말에 주석을 달아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善者可以感發人之善心. 惡子可以懲創人之逸, 其用歸於使人得其情性之正而已.

시경에 있어서 좋은 것은 사람의 좋은 마음씨를 감동 분발시킬 수 있고 나쁜 것은 사람의 난잡한 뜻을 응징(膺懲)할 수 있다. 그것은 결국 사람으로 하여금 심정과 본성을 바로잡을 수 있게 할 따름이다.

이 귀절은 내용이 不正한 <詩經> 詩 몇편이 있는 사실에서 유발되었던 오랜 논쟁에 종지부를 찍은 것이다. 이를 인용한 복헌은 作中人物 교씨와 동청의 언행도 음란하고 악독하나 독자에게 경고를 주기 위한 것임을 주장하려고 한 모양이다.

⁶³ <論語>, 爲政 2.

⁶⁴ <詩經>, 碩 4-1.

그런데 이 두 인물은 하도 흉악하게 또 알뜰게 그려져 있어 복헌의 말은 너무나 자명하여 할 필요도 없고 하물며 주자의 권위에 의지할 필요도 없는 주장으로 보이고 있다. 아래 나오는 바 "是鳥可與他小說同日道哉"라는 말로 미루어 보아 여기서 <四書集注>를 인용한 목적은 <남정기>와 惡人을 매력있게 그리는 소설을 대립시키는 데에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그들과의 차이점은 너무나 현저하다. <남정기>를 누구나 읽어도 명백히 알 수 있는 점을 말하기에도 복헌은 역시 주자의 후원에 호소할 필요가 없었다. 그리고 분명한 말을 하고 난 그는 이어서 <남정기>에 <詩經>과의 공통점이 있다는 단정을 하는 것을 볼 때에 "언문" 소설의 格에 넘치는 비교로 여기지 않을 수 없겠다.

주자의 둘째 인용문도 위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비유에 "敎人" 가치가 있다는 앞의 명제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 그러면 주자의 말대로 어진 마음을 분발시키고 난잡한 욕심을 응징하는 것은 바로 그 은유들이다. 그런 효과가 있는 것이 표현된 것은 물론 아니다. 나타나지 않고 있는 그 속뜻일 것이다. 그런 경고의 대상이 누구나 물어보자. 일반 독자들이라 답을 하는 경우에는 동청과 교씨가 은유적 인물이라고 할 수 없겠고 또 복헌의 말은 陳談屢說일 수 밖에 없겠다. 그 반면 조정의 실제 인물들이라 하는 경우에는 복헌이 은유에 대해 주자의 그런 문구를 인용한 이유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주자가 거기서 풀이하는 공자의 一語는 개인 도덕에 국한된 것으로 해석되기 쉬우나 爲政이라는 표제가 있는 <論語> 第二에서 따온 것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漢代부터 <詩經>에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려고 해왔던 것도 주자의 사실이며 이는 毛詩의 序가 잘 대표하는 경향이다⁶⁵. 宋代에 와서 주자는 <詩集傳>에서 그런 해석이 체계화되어 끌어온 일종의 不條理를 물리치면서 <詩經>의 많은 시중에 본래 사회적 내지는 정치적 측면이 있었음을 잊지 않고 있었다. <詩集傳>의 서문은 <漢書>

⁶⁵ 上同, 大序: "上以風化下, 下以風刺上".

권30이나 여러 古書가 말하고 있는 周나라 시대에 가요를 모았던 소위 采詩之官들에 언급하고 있다. 당시 君主는 백성이 부르는 노래에 귀를 기울여서 그 풍속을 알았을 뿐더러 불평불만도 알게 됨에 따라 그것을 현명하게 참작하여 스스로의 잘못을 고쳤다고 하고 있다. 이런 노래들을 모아 <詩經>을 편찬한 공자는 정계에서 집권한 일이 없지만 사회통치에 크나큰 영향을 미쳤다고 주자는 그 序에서 계속 말하고 있다. 또 그가 <四書集注>에서는 <詩經>의 정치적 측면에 언급하지 않고 있으나 한국에서는 북헌에 300년에 앞선 유명한 <圃隱集>의 序에서 볼 수⁶⁶ 있듯이 주자의 이 주석을 周나라의 采詩官들과 결부시켜 주자 말에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었다.

북헌도 여기서 주자의 문구를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 같다. 거기에 대치가 되고 있는 善惡을 말하자면 善은 사씨와 유한림의 미덕이고 惡은 교씨와 동청의 악덕이다. 그런데 이 4명의 등장인물은 조선 朝廷의 실재 인물을 연상시키는 바로 그 네 명이다. 그 중 3명은 통설대로 민비, 숙종, 장희빈의 그림자들이다. 넷째인 동청은 장씨 별궁에 출입이 잦았던 東平君과 相似함을 필자가 이미 논증한⁶⁷ 바가 있다. 민비 복위운동에 활약한 김춘택은 소설에 등장하는 그 4명이 己巳換局의 주요 당사자들을 모델로 한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 이로 미루어 <남정기설>의 첫 문단에서 바로 그 네 명의 이름 만을 들고 있는 것을 우연으로 볼 수는 없다. 그리고 둘째 문단에서 선인과 악인이 두 명씩 대치되어 있는 것도 우연이 아닐 것이다. 따라서 소위 "좋은 마음을 분발시키고 난잡한 뜻을 억제케 한다"는 교훈은 북헌이 첫 문단에서 이름을 들고있는 바로 그 네 명에게 각각 해당되는 실재 인물들을 상대로 하는 것으로 보아야 옳을 것이다. 그리하여 북헌이 <남정기>가 좋은 일을 하도록 격려한다고 하는 이는 민비와 숙종이며 열정을 금하도록 타이른다는 사람은 장희빈과 동평군이다.

⁶⁶ <東文選>, 권93.

⁶⁷ <아세아 硏究>. 상계론, pp. 198~203.

북헌이 이 글에서 넉넉히 풀이해 주고 있는 <남정기>는 君主를 諷諫하는 두 가지 방식의 좋은 본보기가 되겠다. 하나는 고대의 采詩官들에게 소급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離騷>에서 쓰러린 마음을 토론하고 있는 굴원을 모범으로 하는 것이다. 각 방식에 해당이 되는 은유의 종류가 따로 있는 것 같다.

第三 文段

然先生之作之以諺, 盖欲使閭巷婦女皆得以諷誦觀感, 固亦非偶然者, 而顧無以列於諸子 愚嘗病焉. 會謫居無事 以文字翻出一通. 又不自揆頗增刪而整釐之. 然先生特以其性情思致之妙 而有是書. 故於諺之中猶見詞采, 今愚所翻反有不及焉者. 昔太史公作屈原傳 歐陽子_仁 王氏婦事. 其文與兩人節義爭高. 愚誠美之 而自無以稱謝氏之賢. 然庶幾仰述先生所爲作書教人, 其意非偶然者, 是愚之志也. 覽者恕焉.

그러나 선생이 민간의 부녀자들로 하여금 모두 풍송하여 감동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언문으로 썼음도 우연이 아님은 물론이다. 선생이 이것으로써 諸子 계열에 끼지 못함을 저는 근심해 왔었다. 때 마침 귀양살이에 일이 없어 이를 한문으로 전편 번역했다. 게다가 자신을 과신하여 이것을 자못 늘이고 빼며 가다듬고 고치기도 했다. 그러나 선생의 독특한 성질 심정 사상의 묘함이 있는 이 책은 이로 인하여 언문에서까지도 언사의 우아함이 보였다. 오히려 제가 번역함에 있어 이에 미치지 못한 것이다. 옛적에 태사공이 굴원전을 지었고 구양자가 왕씨부인 사건을 서술했다. 그들의 문체는 주인공 두 분의 절의와 높음을 다루었다.

그것을 감탄하고 있는 저는 사씨의 현명함에 알맞게 하지 못했다. 하여튼 제가 바랐던 바 선생이 사람을 가르치고자 책을 썼고 그 뜻이 우연이 아닌 것을 저는 받들어 진술해 온 것이다. 이는 저의 뜻이었다. 읽는 분은 관용하리라.

이 마지막 三段에서도 내용이 같은 식으로 배열되어 있다. 먼저 서포가 국문으로 썼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언급한 다음 덧붙인 것이 이번에는 서포가 여성들을 상대로 했다는 말이다.

그리고 북헌은 자기 자신이 한역을 했다는 말을 거듭하고는 새로운 점을 추가한다. 끝으로 위의 교화력에 대한 말 대신에 문체를 찬양하는 말을 쓰고 맺는 말은 위에서와 마찬가지로 작자의 의도로 되 돌아온다. 여기서도 이 대칭적 구조를 참작하여 해석해야 하는 줄로 믿는다. 각점은 一·二段에서 상기한 바를 전제해 놓고 다른 식으로 표현되어 있으면서 내용을 조금씩 보태고 있다. 본문의 이런 배열에 착안하지 않으면 <남정기설>을 陳談屢說로 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예를 들어 <남정기>의 문체를 <屈原傳>과 <王氏夫人傳>의 그것과 견주는 찬사를 볼 때에 一·二段에서 주자의 말을 빌어서 이중적 은유를 암시하던 말에 대응하는 대칭적 위치에 놓여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⁶⁸.

또한 <남정기>를 한역한 동기를 밝히는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도 이에 해당되는 위의 내용을 참고해야 한다. 숙종을 넘지시 간하려고 했던 서포는 중국 문학의 풍간 방식을 재치있게 이용하기는 했으나 한국 사대부 사회에서 文章으로 인정받지 않고 있던 소위 언문으로 썼던 것이다. 그 종손은 그들이 서포 작품을 도외시할 우려가 있어 한역을 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북헌은 이어서 서포가 언문으로 써서 여성들을 상대로 한 일이 우연이 아님을 말하고 있다. 끝에 가서 사람을 가르칠 의도를 가졌던 것도 우연이 아니라고 하고 그 사실을 밝히는 것이 자기 뜻하는 바였다고 덧붙인다. 우연이 아니라는 점을

⁶⁸ 필자는 북헌이 여기서 빗대고 있는 歐陽脩 글의 所在를 알아내지 못 했다. 崑園전 <史記>권 69는 첫째 은유와 분명히 관련이 되어 王氏婦事에 대한 글은 둘째와 관련되는 것이 아닌가 한다.

이와 같이 강조하고 있을 필요가 어디 있겠는가? 동기가 있어 무엇을 한다 함은 일부러 한다는 말이나 다름이 없어 우연일 수는 없다. 행동자의 의사를 가리켜 우연이 아니라 함은 한 가지 의미밖에 있을 수 없다. 즉 의향하고 있는 그 목적 자체는 보다 중요한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된다는 뜻이라고 해석치 않을 수 없다.

그리고 한글로 쓴 것이 여성들에게 읽히기 위함이라는 말은 이조시대 실정에 있어서 자명한 이야기였을 것이다. 당시 여성들에게 한문을 가르치지 않고 한글 공부만을 허락했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良家에서는 여자들을 위한 敎訓書를 한글로 지어 代代로 전했다. 그러한 지루한 책보다는 갇힌 생활을 하고 있던 부녀들이 안방에서 상상으로나마 도피케 하는 소설들을 좋아했음은 물론이며 이는 소설을 탐독함을 한탄하고 있는 유학자들의 글을 통해서 잘 알려진 사실이다⁶⁹. 국문 소설의 독자는 김기동교수가 말한 것⁷⁰처럼 여자들이었다.

<남정기설>을 서포가 안방을 위한 좋은 소설을 썼다는 찬사로 제한시켜 해석을 해 온 이유는 여기에 있는 것 같다. 이조 시대의 실정과 <남정기>의 주인공이 烈女인 사실로 미루어 복헌의 글을 이상 분석치 않고 속단한 것이 아닌가 싶다. 그러나 언문으로 쓴 것이 여자들을 위함이라는 뻔한 일을 복헌이 이렇게 역설할 필요가 없었거니와 우연이 아니라는 말을 덧붙일 필요도 더욱 없었다. 그리하여 우연이 아니라 함은 여자를 위해 쓰기로 한 서포가 다른 목표를 노리고 있었다는 뜻으로 해석되지 않을 수 없다.

그 목표는 위의 두 절의 인용문이 이미 암시한 것이 아니면 무엇이랴. 하나는 하소연을 하는 「怨妻」와 「放臣」과 또 들어주는 「所天」 간에 있는 交流를 말하고 다른 하나는 민요의 수집을 통해서 백성의 歎願에 귀를 기울여 주었던 고대의

⁶⁹ 예를 들어 李德懋(1741~1793)의 士小節, 권7 참조.

⁷⁰ <상계서>, p. 82.

賢君들을 상기시키고 있었다. 서포가 閭閻의 부녀들을 위해 썼다는 말을 이해하는 데 위의 두 인용문을 염두에 두고 있음이 중요한 것 같다.

뿐만 아니라 복헌이 <남정기>를 논하기 직전에 국문 가사를 전승하는 여인들의 역할을 설명한 말을 참작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는 거기서 漢詩에 비해 한글詩가 본국의 음악에 잘 어울리고 있음을 지적한 다음 권16, 23張에서 그 사실에 증명하기 위해 자기 어릴 때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 집에 春台라는 여종이 있었는데 노령에 이르러서도 송강 가사를 부르곤 했다는 것이다. 그 노파는 젊었을 때에 金淸陰⁷¹ 집에 살았었다. 김청음은 집안의 모든 여자들로 하여금 그 노래를 배우게 했다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한 복헌은 김청음과 같은 大家가 송강 가사를 즐겼던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송강이 두 편의 美人曲을 언문으로 지었던 것은 그가 우울한 귀양살이를 하고 있을 때에 君臣 관계를 남녀의 愛憎에 비유했기 때문이라 한다. 복헌은 또 그 가사가 崑園의 <離騷>와 같다고 한 다음 종조부 서포가 송강 가사를 手寫하고 그 책 머리에 諺騷라는 제목을 써 붙였다는 유명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자기도 제주도에서 귀양살이⁷²를 하고 있을 적에 崑園과 송강을 본따서 思美人曲이라는 은유적 가사를 한글로 지었다⁷³고 한다. 그리고 <남정기설>에 이르기 바로 앞서 그런 詩歌가 전승되는 과정에 다시 언급을 하는 바가 있다. 즉

(前略) 妓亦習音者也. 且君臣之義非其所可知 而男女之情乃其所備諳者. 情苟感焉. 則其發爲聲音愈足以動人矣. 今以比詞留傳於州妓之善歌者. 使後之聽之者得因其辭

⁷¹ 淸陰 金尙憲(1570~1652).

⁷² 이 말을 볼 때에 복헌이 이 글을 마지막 적소이었던 全羅道 臨陂에서 썼음을 알 수 있다. 제주도에서 거기에 옮겨져 1717년에 죽을 때까지 있었다. 金民澤, <竹軒集>, 권3 참고.

⁷³ 李秉岐編, <別思美人詞(국문)>, <국어국문학> 1956년, 15호, pp. 116~118 참고. 출처에 대한 언급은 없다.

而究其意 是余尙可以遇知己也. 李東岳⁷⁴ 聞唱松江詞詩曰 惆悵戀君無限意 世間惟有女娘知. 女娘固知之 而如東岳知. 女娘之知之 是即知松江者也. 安知後之君子不更有如東岳者歟.

기생들은 노래를 부르고 곡조과 가사를 전하여 보급시킬 뿐더러 그녀들은 또한 은유적 해석의 비밀을 알고 있어서 묻는 사람에게 풀이 해주기도 했다는 말이다.

<남정기>는 詩가 아니어서 기생에 의해 불리워질 종류의 것이 아니라 "모든" 부녀들에 의해 읽혀질 작품이다. 한글로 쓰여진 것이 그들을 위함이라는 것이고 또 북헌이 거기에 덧붙이기를 "그것이 우연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다. 달리 말하면 서포는 뚜렷한 목적이 있어서 이를 한 것이다. 유배자가 가진 목적에야 유배 가사를 지은 송강과 북헌 자신이 노리고 있던 그것과 다름이 있을 리가 없다. 마치 상기한 시인 두 명이 유배소에서 은유 가사를 한글로 지어 기생들에게 말긴 것처럼 서포가 은유 소설을 국문으로 써서 여자들에게 의탁하려고 했다는 것으로 풀이가 된다. 그리고 마치 기생들이 작자 이름을 대춤으로써 은유적 의미를 밝히듯이 일반 여자들이 서포 이름을 전하여 <남정기>의 숨은 뜻을 짐작케 하고 同情을 얻어주기를 바랐다는 이야기가 된다.

동정을 제일 높은 데서 얻기를 원했는지도 모른다. 북헌이 쓴 閨閣이란 말은 관박이 숙어로서 주자나 <詩集傳> 序에서 고대의 賢君이 채집하려고 했던 민가의 출처를 가리키는 데 사용한 표현이다. 시골의 소박한 맛도 나고 어진 임금이 연상되기도 한다. 그러나 <남정기> 독자들의 환경에 적용된 이 글에서는 田園과 거리가 먼 현실을 의미하는지 모른다. 소설은 우물가에 모인 농촌 여성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양반 저택의 안방에 갇혀 사는 부녀들에 의해 읽혀졌었다. <남정기>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따라서 북헌 글의 함축성을 풀어내면 옛날 민요를 통해서

⁷⁴ 東岳 李安訥(1571~1637).

그랬듯이 서포는 그녀들을 통해서 임금에게까지 이르러서 그 호의를 회복하기 바랐다는 말이 된다.

실은 안방에서 안방으로 서포의 적소에서부터 서울의 조정에까지 길은 멀고 멀었다. 그렇지만 「남정기설」을 쓰고 있는 복헌은 젊었을 때에 민비 복위 운동의 주동자였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甲戌(1694)년 사월에 음모가 발각되자 右議政 閔黯은 공모자들을 체포시켰었다⁷⁵. 그들의 고백은 政局의 전복과 아울러 민비의 복위를 도모하여 募金을 했다는 고발문을 확증하였었다. 1689년부터 집권해왔던 南人들은 西人들을 抹殺해 버릴 기회가 온 줄을 알았었다. 그러나 言渡가 내려지기 전날 밤에 숙종이 갑자기 번의를 하여 김춘택과 그 연루자들을 석방시키고 민암과 남인파의 수많은 인사들을 투옥했다.

젊은 김춘택은 죽음을 면했을 뿐만 아니라 韓重憐 등의 도움을 받아 政界의 환국을 일으켜 서인파가 재집권하게 되는 기틀을 잡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공로를 시인하는 사람은 없었다. 오히려 같은 일파들까지도 그가 사용했던 수단을 비난했었다. 그가 죽을 때까지 비난 소리가 그치지 않았다. 공모자들은 기금을 모았었다. 그 사실을 전한 여러 사료들⁷⁶에 돈을 어떤 목적으로 또는 어떻게 썼고 그리고 쓰려고 했던가에 관해서는 언급을 안하고 있다. 아마 이 점에 관해서 침묵을 지키는 것이 나았을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甲戌換局이란 무엇보다도 숙종 자신의 마음에서 생긴 급변이었기 때문이다. 모아 놓은 돈은 왕에게 영향을 미칠 만한 사람들을 買收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을까? 동시대의 南夏正(1678~1751)이 전한 바⁷⁷에 의하면 당시에 그런 소문이 돌고 있었다고 한다.

⁷⁵ <肅宗實錄> 二十年 甲戌 三月, 26 : 6b-13a.

⁷⁶ 이 史料들은 <燃藜室記述>, 권5, 朝鮮古書刊行會 1912~1914년, 9책. 책 6, p. 386, p. 388, pp.379~400에 모여 있다. 편자 李肯翹(1736~1806)은 西人派의 少論에 속하여 老論에 속한 복헌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을 잘 기록해 놓았다.

⁷⁷ 上同, p.386, 桐巢錄.

甲戌春. 春澤就獄. 以聚銀交通. 后後換局等節次. 取招結案. 而會其日日暮. 將待明行刑. 夜二更, 時事忽大變, 澤赫之行貨交通, 果是何逕. 而其間事秘, 世莫得以知其故, 或曰澤以千金. 圖得宮人之妹爲妾, 此其爲通風蹊徑云.

이상 소위 "바람이 통하는 작은 길" 이외에도 成樂熏氏가 전한 바에 의하면 숙종의 보모 奉保夫人이 金春澤 집의 단골로서 宮禁과 맺어준 연락도 있었다고 한다⁷⁸.

1694년에 거둔 성공은 24세의 김춘택의 경력에 중지부를 찍고 말았다. 그는 일평생 부정한 혐의를 끝내 벗어나지 못했다. 光山 金氏 일가 중에서 높은 벼슬을 하는 이들도 난처하여 그를 변호하지 못한 것을 볼 때에 사실⁷⁹이었던 것으로 생각이 된다. 그런 복헌이 임금에게까지 통하게 했던 길은 여자들이었다. 또한 복헌은 수년 후⁸⁰ <남정기>를 논하여 굴원이 하소연하는 「초사」와 군주가 改過하기를 비는 「시경」의 몇 편과 공통점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그 소설이 부녀들에게 읽히도록 한글로 쓰인 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덧붙여 강조한다. 이는 <남정기>를 宮中 음모에 이용하던 일이 작가 자신이 원했던 것이라는 뜻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이에 관해 金氏 가문의 서포 후손들이 전해온 설화를 丁奎福교수가 발표한 바⁸¹가

⁷⁸ <韓國文化史大系>, 1964~1972, 7책, 책2, p. 340. 成樂熏氏는 그런 보고의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있다.

⁷⁹ 반대자들의 다음과 같은 말로 보아서 金春澤의 근본 잘못을 짐작할 수 있다. "中宮復位 目上一朝, 覺悟斷然行之" (尹趾完, <연려실기술>, 上同, p. 400). "有一春澤者, 耳自以爲功" (李瀾, 1706 p. 년, 上同 510). 젊은 김춘택은 사형을 면하고 獄에서 풀리고 비밀 활동의 성과를 뜻밖에도 거두게 되어 기쁜 나머지 함부로 자랑한 것 같다. 그런데 甲戌換局은 임금 자신의 갑작스런 飜意로 인한 일이었던 만큼 그 원인을 음모의 성공으로 돌리는 말은 不敬스런 妄言이 아닐 수 없었다. 숙종 자신이 외부 음모자에게서부터 권유를 받은 사람이나 심지어는 매수를 당한 사람의 영향을 받았다는 말이나 다름이 없었다.

⁸⁰ 1706-1710년 사이에.

⁸¹ <成大文學>, 상계론, p. 2.

있다. 즉 김만중 十代孫인 金大中氏에 따르면 서포는 <남정기>를 쓴 후 "종손 춘택을 시켜 宮中에 퍼뜨리라 했다". 그러나 북헌이 <남정기>를 읽어보고 그대로 퍼뜨리다간 더욱 大變을 당할 것을 생각하여 북헌이 이를 漢譯하여 作者를 中國人으로 僞裝하기 위하여 使臣을 시켜 중국에서 출판하여 國內로 가져오게 한 후에 <남정기>를 宮中에 퍼뜨렸다 한다. 하루는 肅宗께서 宮庭을 산책하다가 궁녀가 <남정기>를 읽는 것을 보고, 그 이야기가 자기의 閔妃廢黜 處事와 유사한지라 그 소설의 출처를 알아 보았더니 그 원본이 중국 소설임을 알고 일이 無事했다 한다.

이런 家傳說話에 대하여 신중을 기해야 함은 두 말을 할 나위가 없다⁸². 그리고 북헌의 <남정기설>과 相反되는 세부 사항은 여러 가지가 있다. <남정기>를 한역한 곳은 서울이 아니라 제주도며 시기는 1694년 이전이 아니라 1706년 이후다. 또 한역 작업은 著者名을 숨기기 위한 것이기는 커녕 오히려 그 이름을 學界에 빛내기 위한 것이었다.

반면 <남정기설>과 모순이 되지 않고 도리어 북헌의 의사를 이해하기에 도움이 되는 점도 있다. 이는 서포가 종손에 <남정기>를 궁중에 퍼뜨릴 심부름을 시켰다는 이야기다. <남정기설>에 의하면 서포가 "언문"으로 쓴 동기는 부녀자들이 모두 풍송할 수 있게 하는 데 있었다.

이에 북헌이 계속 말하기를 언문으로 쓴 것은 우연이 아니었고 또 사람을 교화시킬 목적을 가진 것도 우연이 아니었다 하고 있다. 또 마무리하기를 자기가 서문을 지은 동기도 우연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있었다 한다 : 是愚之志也. 이런 말들을 달리하여 다음과 같이 풀이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남정기>를 써서 임금을 간하려 하고 그 諷諫을 여자들을 통하여 전하려고 하던 이는 내(김춘택)가 아니라 곧 나의 종조부 서포선생 자신이다. 더 한층 풀어보면 "마침 이런 해석을 받을 수 있는 소설이 우연히 내 손에 들어와 내가 저자 意外에

⁸² 필자의 <아세아研究>, 상계론, pp. 194~195 참고.

이용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렇게 사용한 것은 저자의 뜻을 만들었을 뿐이다"라고 하는 말로 생각이 된다. <남정기설>의 여러 말 가운데 "우연이 아니다" 하는 말에 이상과 같이 비난 소리를 반박하는 뜻이 있지 않은가 싶다. 필자의 생각에는 이렇게 해석해야 부정을 거듭하여 강조하고 있는 사실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김씨 가문에서 전해온 바 복헌이 <남정기>를 궁녀들에게 돌릴 심부름을 맡았다는 설화가 사실이라고 일단 가정해본다면 <남정기>가 궁녀들 중에 유포되어 그녀들에 의해 민비 폐출 處事에 대한 풍간으로 해석받은 것은 저자의 뜻이 아니라 젊은 김춘택의 地下 工作에 의한 것 뿐이었다는 말이 西人 가운데에도 있었을 만하다. 이런 가정 하에서는 <남정기설>은 하나의 辨明이 되는 것이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서인파에서 누구나 숭상했던 故 서포 선생의 작품을 떳떳하지 못한 일에 독단으로 이용했다는 비난에 대한 반박이 될 것이다.

한편 숙종이 정원을 거닐다가 궁녀가 <남정기>를 읽는 것을 보았다는 이야기는 증거가 없음은 물론이거니와 진실로 받아들이기엔 너무나 멋지게 꾸며진 것으로 보인다⁸³. 그러나 <남정기>와 <남정기설>에 대한 필자의 해석이 맞는다면, 따라서 <남정기>가 확실히 풍간 문학에 속한다면 저자가 노렸던 독자는 숙종 자신이었던 사실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⁸⁴.

⁸³ 이에 대하여 靑柳綱太郎과 朴晟義가 전하는 바에 의하면 숙종이 <남정기>를 읽어 감동한 것이 갑술 환국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 그런 설화를 확인할 길이 없음은 두 말을 할 나위 없다. 前者의 <朝鮮文化大全>, 朝鮮硏究會, 1924년, 1257 p. pp. 1188~1191, 後者의 <韓國古代小說史>, 1958년, 재판 1963년, 458 p, p. 293 참고.

⁸⁴ 복헌이 서문 끝에 쓴 「覽者怨焉」이라는 문장에서 敬語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주목할 만하다. 「覽」字는 읽는 자를 높이는 말이었다. 일반 독자에 대한 겸양으로도 볼 수 있겠지만 「남정기설」의 문맥으로 미루어 읽는 이가 임금인 경우 쓰던 경어임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결론으로 북헌은 <남정기>의 진정한 의미를 신중을 기하여 비밀로 하기는 고사하고 재치있는 독자에게 던지시 알리기 위해 붓을 든 것이라 하겠다. 마치 작품 중에서는 사씨의 미덕이 추방당한 충신과 어진 왕비의 그것을 가리키고 있듯이 <남정기설>에서는 주인공의 미덕과 소설의 교화력에 관한 찬사 그 자체가 <남정기>의 은밀한 뜻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남정기>는 북헌 말대로 다른 소설과 동일시하기 어렵다. 五倫에 해당되는 의덕을 예증하는 것으로서 소설이라 해도 「小道」는 아니다. 주자가 원했던 문학 작품 그대로다. 이를 쓴 君子는 위신을 손상치 않았다.

그런데 북헌에 의하면 주자학의 문학과 이렇게 합치되는 소설은 <남정기> 하나 뿐이다. 북헌의 가족 단결심에 의한 과언인지도 모르겠으나 이조국문 소설 대부분은 연기미상이라는 실정으로 보아서는 북헌의 이 단언도 역시 글자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지도 모른다. 왜냐 하면 북헌은 <남정기>를 중국에도 전례가 없는 새 종류의 소설이라고 소개했기 때문이다. 이것이 정말로 이조 문학에 있어서 새 潮流의 起源이 되었다 하면 주자 말⁸⁵대로 孝, 弟, 忠, 信에 따른 행위에 대한 敎化的 이야기 책이었을 것이다. <남정기설>을 분석하고 나서 <남정기>는 이런 교화 소설의 새 文類의 發端이 되지 않았는가 라는 자문을 자연스럽게 하게 된다. 특히 忠君愛國과 같은 고귀한 情은 서포가 처음으로 소설을 통해서 표현한 것이다. 그 본을 따서 교화 내지는 풍간을 목적으로 쓰인 후기의 소설이 있었는가 하는 연구 과제가 남아 있다.

⁸⁵ <御纂朱子全書>; 권5.